

T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 (Isaiah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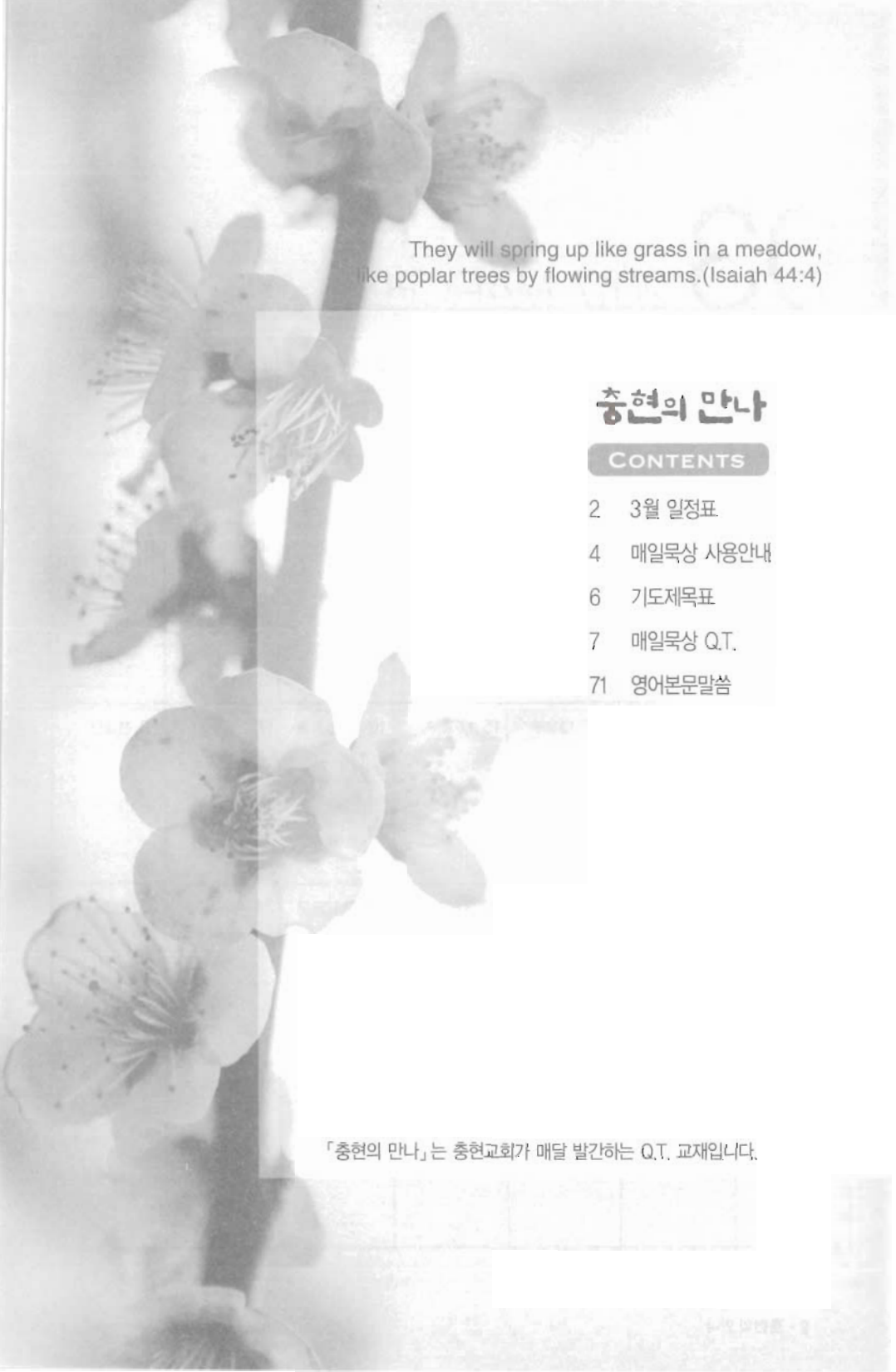
2017 03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누가복음

대한국어학교 창 3 회 충현교회



T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 (Isaiah 44:4)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3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71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0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1,6교구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	2 10,16교구	3 2,8교구	4 전교인
5 전교인 제2차 성찬식	6 전교인	7 11,17교구	8 3,9교구	9 12,18교구	10 4,14교구	11 전교인
12 전교인	13 전교인	14 7,13교구	15 1,5교구	16 10,15교구	17 2,6교구	18 전교인
19 전교인	20 전교인	21 11,16교구	22 3,8교구	23 12,17교구	24 4,9교구	25 전교인
26 전교인	27 전교인	28 13,18교구	29 5,14교구	30 7,15교구	31 1,6교구	

교회 주요 일정

3월 1일(수)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
3월 5일(주일)	제2차 성찬식

3월, 개인 전도 계획

.....

.....

.....

.....

.....

.....

.....

.....

.....

.....

.....

.....

.....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 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났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한 것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 ③ 어떠한 음부의 권세와 이단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시온 성과 같은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④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및 해당 교구 전도, 동역교회 전도 지원 사역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 ⑥ 각 교구와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⑦ 부임하실 담임목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부임의 과정과 절차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소서.
- ⑧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담임목사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 ⑨ 장로·안수집사·권사 피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 본문 해설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배움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고 사치러운 생활을 했습니다(19절). 반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상처가 있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해서 헐어 있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20~21절). 이 땅에서의 삶을 놓고 보자면 정말 나사로의 삶을 끔찍한 삶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잠시의 이 땅의 삶을 마친 후 영원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부자는 극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나사로가 손가락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에 대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불가했습니다. 부자는 이 고통스러운 장소에 자신의 가족들이 오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님은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들, 곧 그들이 증언인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거지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서는 유명했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불신자들의 부와 영광은 잠시입니다. 죽은 자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말씀에 기록된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세상의 유익보다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¹⁹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²⁰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²¹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현대를 핥더라 ²²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²³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²⁴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²⁵아브라함이 이르되 애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сар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²⁶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²⁷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²⁸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²⁹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³⁰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³¹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현실을 아시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1절).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는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리라 연자맷돌을 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하셨는데, 이는 그 죄가 그토록 중하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잘못된 후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은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전제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믿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5절).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혹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무익한 종으로 해야 할 일을 했기에 자랑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10절).

» 기도 제목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소서.

¹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²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³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⁴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⁵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⁶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뿔나무더러 뿌리가 뽑

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⁷너희 중 누구에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⁸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⁹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¹⁰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나병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본 즉 자신의 몸이 온전히 깨끗함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나머지 아홉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처럼 여겨지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했던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돌아와 감사했던 그는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다급할 때 주님을 찾다가 응답 받은 뒤에는 주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쪽정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없고, 주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에 빚진 자가 되게 하소서.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
 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
 은지라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
 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
 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 예수께서 대답
 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
 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
 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
 시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윗 때와 같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강대국이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며,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또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심판 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여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에 같이 그 때에는 매우 패역한 시대일 것이며, 또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된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게 하소서.

²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²¹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²²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²³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²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²⁵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²⁶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모든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 직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홍수에 다 죽었습니다. 롯의 때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온갖 유흥과 음란 속에서 쾌락을 쫓아 살다가 결국 불과 유흥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에는 둘이 한 자리에 누웠는데, 한 사람을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두 여자가 댛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종말적인 구원과 심판의 시간이 우리의 일상 속에 언제가 다가올 실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꼭 예배드릴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을 일하고 있을 때 오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²⁷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²⁸ 또 룩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²⁹ 룩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³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³¹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지 말 것이니

라 ³² 룩의 처를 기억하라 ³³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³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³⁵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³⁶ (없음) ³⁷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아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본문 누가복음 18:1~8 찬송가 487장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한 가지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한 과부가 와서 자주 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하였지만, 그 과부가 괴로울 정도로 찾아가 끈기 있게 간청하였더니, 그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기에 빨리 들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재판장도 계속 간구했던 가난한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듯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도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선�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시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 기도 제목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구하면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¹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²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³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⁴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
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을 무시하나 ⁵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⁶주
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
을 들으라 ⁷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
짚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
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⁸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여러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외적으로 볼 때 경건했던 자들입니다. 한 바리새인은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착각이었습니다. 반면 한 세리는 성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경건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솔직하게 주님께 나오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 기도 제목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⁹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
 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¹⁰ 두 사
 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
 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¹¹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
 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
 사하나이다 ¹²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¹³ 세리

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
 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
 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
 다 하였느니라 ¹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해주시길 바라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모와 어린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린 아이들처럼 나이가 어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유치한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의 어떤 속성을 본받기를 의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대 의존적인 마음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부모에 대한 단순한 믿음과 의존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의 의존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18절부터는 어릴 때부터 나름 율법을 잘 지켰던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그는 부자입니다. 자신을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나름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켰던 젊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젊음이의 예상과 달리 파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는 고민하며 떠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재산을 버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을 기꺼이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에 있습니다.

>>> 기도 제목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йка *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본문 누가복음 18:31~43 찬송가 424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종교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삼 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면 35절에 등장하는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세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였지만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그의 눈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교회에 주기적으로 나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믿음대로 순종하는지 깨닫게 하소서.

³¹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³²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³³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³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³⁵ 예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 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³⁶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³⁷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³⁸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³⁹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⁴⁰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⁴¹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⁴²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⁴³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관료로서 동족에게서 세금을 받을 때 정해진 것보다 많은 돈을 부과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로 여겨졌으며, 창녀와 더불어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삭개오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평소에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은 삭개오는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들였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중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율법에 따라 네 갑절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삭개오가 진실로 회개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고,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비판을 받았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인정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 기도 제목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¹ 예수께서 예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²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지라 ³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⁵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⁶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

접하거늘 ⁷ 모든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⁸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⁹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¹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11절).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므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므나 비유에서 예수님은 먼 나라로 떠나는 귀인으로, 은 열 므나를 받은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귀인을 미워해 그가 왕위를 받아 오는 것을 반대하는 백성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종교지도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마 25:14~30)와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차등을 두어 달란트를 나눠 주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열명에게 은 열 므나, 즉 한 사람에게 한 므나씩 나누어 줍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분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한 므나로 열 므나와 다섯 므나를 남긴 종들은 칭찬을 받지만, 한 므나를 수건에 싸 뒀던 종은 책망을 받고 그 한 므나마져 빼앗겼습니다(24절). 세 번째 종이 악하다고 평가된 이유는 자신이 받은 능력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주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종된 모습, 무익한 종의 모습을 발견하며, 이제 는 주인을 위해 맡겨주신 기회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 기도 제목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재능, 물질, 인간관계 등 주님이 주신 것을 영원한 목적을 위해 성실히 사용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12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4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15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6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며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8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

지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21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네가 네 말로 나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24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26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 그리고 내가 왕 됄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구약의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감람 산에 오르셨습니다(29절). 그리고 제자 중 두 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따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대부분의 경우 그 일들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히 예루살렘에 앞서서 가셨습니다(28절). 직접 입술을 열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30절)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며, 지금까지는 그것을 숨기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스 9:9)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뤄지도록 빈틈없이 이루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 기도 제목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²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²⁹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³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³¹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

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³²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³³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³⁴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³⁵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³⁶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겹옷을 길에 퍼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구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38절). 그들의 환호성은 비록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무지에서 터져 나온 것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심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낱 피조물인 돌들마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소리지를 것입니다(40절). 우리는 날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지,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있는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성전을 바라보시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41절). '보살핌 받는 날' (44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먼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종교상을 척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함을 말씀하셨습니다(46절, 사 56:7).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성전의 모습과 그리고 성전의 주인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 기도 제목

성전을 보시고 후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림으로, 성전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³⁷ 이미 감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³⁸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³⁹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⁴⁰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⁴¹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⁴²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⁴³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

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⁴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⁴⁵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⁴⁶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⁴⁷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⁴⁸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질문은 공관복음 모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상으로는 복음서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라면 누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1절). 이러한 가르침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질문을 좀 더 분명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과 함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2절).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일이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조직적인 훼방, 말씀과 권위에 대한 도전 앞에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질문을 하심으로 대처하셨습니다(4절). 그들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답하기를 꺼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역시 자신의 권위에 대해 답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8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권세로 선포되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이유로 거부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역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마지막 결산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3).

>>> 기도 제목

세상의 권위와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위를 바로 알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소서.

¹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²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³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⁴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⁵그들이 서로 의논

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⁶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⁷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⁸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종교지도자들은 성경(구약)을 알았으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관해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사 5:1~7; 시 80:8이하).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으며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수확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고 그분이 맡기신 임무를 기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바칠 것을 착복했으며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태도에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자신의 종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12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마 23:29~39).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스런 아들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성자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로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끝은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악한 농부들을 향한 심판입니다(16~18절).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해 아들을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고통으로 인해 제자로서의 길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따를 것인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 기도 제목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⁹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¹⁰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¹¹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¹²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¹³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¹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

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¹⁵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¹⁶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¹⁷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이냐 ¹⁸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에서 올무를 찾고자 정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입에서 답을 유도하여 그로 인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20절). 20절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언급된 내용입니다. 정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신실한 척하면서 예수님이 아무런 편견이 없이 옳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칭찬을 하고, 그에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답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21~22절). 그들의 질문은 양자 택일의 답을 요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든지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당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면할 수 없게 되고, 반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일부 극단주의자들에게 제2계명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로마의 앞잡이로 오인받을 위험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사실상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려는 것임을 눈치채고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십니다(23~25절). “가이사라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25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세상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그 어떤 의무보다 우선시 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¹⁹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²⁰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²¹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²²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²³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²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²⁵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²⁶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우리의 신앙은 부활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27절).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그룹으로서 정치적,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부활에 관하여 물었는데, 이 질문은 외관상으로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일곱 형제가 있던 집안에 맏며느리가 형사취수법(신 25:5~10)에 따라 일곱 형제 모두를 취하고도 대를 이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은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면서,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32~33절).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부활 후의 결혼 관계에 대한 질문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음을 잘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38절). 이로써 세상의 자녀들은 지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부활의 자녀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가치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의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요일 4:4~5).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진정한 부활의 자녀로서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생명의 불을 밝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²⁷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²⁸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²⁹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³⁰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³¹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³²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³³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³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³⁵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³⁶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³⁷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³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³⁹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⁴⁰ 그들은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 이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로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다윗도 메시아의 조상이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칭송했습니다(시 110:1).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큰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이 계시를 깨달았을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계시되었습니다(1:17, 43, 2:11, 26).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호칭되었습니다(3:4, 5:8, 7:19, 9:54, 10:1, 11:1). 동시에 예수님은 귀신들과 제자들에 의하여 그리스도로 인식되었습니다(4:41, 9:20).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자신의 참 존재를 모르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그의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45절).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했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46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과부들의 가산을 갈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받을 심판이 매우 중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47절).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보다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을 온세상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⁴³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⁴²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⁴³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⁴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⁴⁵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⁴⁶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⁴⁷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두 렘돈을 헌금한 과부는 교만한 서기관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본문은 과부의 가난과 빈궁을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2~4절). 과부는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너무 궁핍하여 거지처럼 빌어먹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이런 과부는 가난하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3절)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가리켜 자랑을 했습니다(5절).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6절).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위선의 도가니였고,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심판의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종말을 예언하고, 평화를 가장한 온갖 것이 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때에도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평화에 속지 말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

»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있음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하소서.

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한금함에 헌
 금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
 가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3 이르시되 내
 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
 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 저
 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5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
 르시되 6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
 라 7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8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
 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
 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9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
 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핍박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필수 과목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혹독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쟁과 난리,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까지 있을 것입니다(10~11절). 한편으로 제자들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회당에 넘겨지고, 다른 한편으로 이방인들에 의하여 왕들과 총독들 앞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12절). 그러나 이 기간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쟁, 천재지변, 박해, 복음전파의 기회 등에 대한 언급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중인들이 회당 앞에 끌려가며(4~5장),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는 사실(24~26장)에서 이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핍박의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때에 대적자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지체로운 말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14~15절). 임박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부활의 자녀에게 주시는 '믿음'과 '인내'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가족에게 박해를 받을지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인내로 나아가는 자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며(18절), 고난을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게 하십니다(19절).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악함에 대해 경고하실 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 기도 제목

지금은 믿음과 인내로서 나아가야 하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¹⁰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¹¹ 곳곳에 큰 지진과 기
 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
 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¹²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
 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¹³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¹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¹⁵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
 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
 희에게 주리라 ¹⁶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
 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¹⁷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
 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¹⁸ 너
 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¹⁹ 너희
 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20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22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도망하라(21절), 촌에 있는 자들(성 밖을 의미)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21절).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며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임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23절). 백성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힐 것도 예언하셨습니다(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일월성신, 땅과 바다의 혼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림으로 인해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습니다(25절). 이때에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무서워 기절할 것입니다(26절). 그러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속량의 날입니다(28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를 들고 맞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27~28절).

실제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모인 자들은 결국 아사로 인해 죽습니다. 이를 통해 인자의 임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속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구주시며 왕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길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²⁶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²⁷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²⁸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²⁹ 그 날에는 아이 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³⁰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

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³¹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³²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³³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³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비유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올
을 알 듯 종말이 임박한 것임을 알려셨습니다(29~30절). 또한 종말의 징조가
임박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31절).
이 날은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 하
셨습니다(32~33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32절). 가깝게는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온
인류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날은 뜻밖에 뜻과
같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34~35
절). 예수님은 이 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36절).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함과 술취함, 생활의 염
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경고하셨습니다(34절). 예수님은 또한 공생
애 기간 낮에는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
라 하는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쉬셨습니다(37~38절).

온 인류에게 임할 이 심판의 날을 어느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그 날이 언
제일지 알 수 없으나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할 것
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조차도 밤에는 기도로 낮에는 하나님 나라 전파
에 힘썼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이 연합한 영혼
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길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²⁹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³⁰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³¹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³²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³³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³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닷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³⁵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³⁶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³⁷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³⁸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8절).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 월(태양력 4월) 14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양을 잡아 그날 저녁에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절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내로 들어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을 먹을 객실을 물으라 하였고(11절), 그리하면 그가 마련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12절). 한편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3절). 그는 서기관, 대제사장, 성전 경비대장들과 모의하여 돈을 받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2,5~6절).

예수님이 죽을 준비를 하는 동안 사탄도 그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쓰임 받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편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과 사탄 편에서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히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일꾼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¹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²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 이더라 ³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매 ⁵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⁶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⁷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⁸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⁹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¹⁰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¹¹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¹²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¹³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고난 받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15절). 이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의 고통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25절).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16절). 그리고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며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17~18절). 또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시며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19절).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다시 잔을 나누시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20절).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자신의 최후의 만찬인 성만찬과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유대의 전통적인 유월절과 새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의 만찬은 예수님의 희생,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온 인류에게 임할 구원의 복된 소식, 새 언약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길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¹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
 사 ¹⁵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¹⁶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
 라 하시고 ¹⁷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 하
 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갓다가 너희끼리 나누
 라 ¹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¹⁹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
 라 하시고 ²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²¹ 그
 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²²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
 으리로다 하시니 ²³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
 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다투었습니다(24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앉아서 먹는 자가 큰가, 시중드는 자가 큰가” 라고 물으셨습니다(27절). 이방인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27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젊은 자와 같을 것이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25~26절).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맡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28~29절). 또한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열 두 지파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30절). 이어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과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31~34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의 시험에서 돌이킨 후형제를 굳건하게 할 것을 당부하시며 그를 위해 기도로 섬기셨습니다(32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으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진실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한 시련들을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이겨내길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을 본 받아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소서.

²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²⁵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²⁶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²⁷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²⁸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²⁹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³⁰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³¹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깨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³²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³³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³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 산에 가셨습니다(39절).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임박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36절). 그러할 때가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37절). 그렇기에 그는 함께 간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40절). 그리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받을 고난의 잔에 대해 고뇌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44절).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셨습니다(43절). 예수님은 자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46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려는 순종과 십자가를 감당해 내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진실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 기도 제목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³⁵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³⁶ 이르시되 이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겹옷을 팔아 살지어다 ³⁷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³⁸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³⁹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⁴⁰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

게 기도하라 하시고 ⁴¹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⁴²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⁴³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⁴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⁴⁵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⁴⁶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감람 산에서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자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47절).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셨습니다(48절).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실 때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 22:21). 예수님의 이 일은 이미 작정된 대로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눅 22:22).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칼로 치려 했습니다(49절).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50절). 예수님은 그 귀를 만져 낮게 하시며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습니다(51절).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셨습니다(53절).

‘너희의 때’ 곧 악한 일을 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활동하는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 말씀 성취의 전망에서 바라봅니다. 이 어둠의 권세 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자신을 맞추시며 순종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로 겸손히 낮추길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⁴⁷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⁴⁸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⁴⁹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⁵⁰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⁵¹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낮게 하시더라 ⁵²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⁵³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경비대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뜰로 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따라갔습니다(54절).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을 때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습니다(55절). 한 여종이 그를 주목하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고발하였습니다(56절). 조금 후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너도 그도 당이다”라고 하였습니다(58절). 그러나 그는 이 사람들의 말에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57~58절). 한 시간쯤 지나 또 한 사람이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고발하였습니다(59절). 그 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60절).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61~62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61절).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60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밭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 끝까지 예수님은 그의 제자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조차도 용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복음의 증거자로 세웁니다. 이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⁵⁴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
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⁵⁵사람들
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⁵⁶한 여종이 베
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
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
라 하니 ⁵⁷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
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⁵⁸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
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

는 아니로라 하더라 ⁵⁹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
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⁶⁰베드
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
이 곧 울더라 ⁶¹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
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
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
나서 ⁶²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를 희롱하고 때렸습니다(63절). 그의 눈을 가리며 네가 선지자면 너를 친자가 누구냐고 조롱하며 많은 말로 그를 욕하였습니다(64~65절). 날이 밝아오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었습니다(66절). 그리고 심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67절). 그러나 “내가 그다” 라고 대답하시는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70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예언하셨습니다(69절).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증거로 삼았습니다(71절).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들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수건으로 그 얼굴에 쓴 것까지 이스라엘에게 가려진 이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성도의 삶 속에 있길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소서.

⁶³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⁶⁴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⁶⁵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⁶⁶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
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
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⁶⁷ 이르되 네가 그리스
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⁶⁸ 내

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⁶⁹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⁷⁰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⁷¹ 그
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
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1절). 그리고 백성을 미혹케 하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자라고 고발하였습니다(2절).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3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했지만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4절).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일렸습니다(4절). 그럼에도 무리들은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일이 참으로 골치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자로 그에게 이 일을 일임하였습니다(6~7절).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8절). 그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것은 이적을 통한 소문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8절).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에게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9절).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한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11절). 전에는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는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습니다(12절).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판결합니다. 그 같은 판결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더욱더 힘써 고발합니다(10절). 악인들의 마음 속에서 종교로 생겨난 적대감과 증오는 필사적입니다. 전통과 종교의식에만 사로잡힌 이들의 악은 결국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입니다. 잘못된 메시야관으로 그들은 참 메시아를 죽입니다. 이것이 최악된 인간들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으며 날마다 피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¹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²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³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⁴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⁵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⁶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

어 ⁷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⁸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⁹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¹⁰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¹¹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¹²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헤롯에게서 예수님을 되돌려 받은 빌라도는 다시 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한 차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22절)라며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만한 아무런 죄가 없으니 그저 채찍질 정도만 하고 풀어주겠다는 의도였습니다(15~16절). 이때 종교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18~19절). 결국 이들의 요구 앞에 빌라도는 자신의 원래 의도를 포기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말았습니다(25절). 이렇게 본문에서는 이미 중한 죄로 판결을 받아 투옥되어 있는 바라바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중벌에서 벗어나고, 그와는 반대로 중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은 가장 무거운 형벌인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 하는 모순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구원 진리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을 역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성취를 더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의 사형 선고는 우리가 받아야 할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침묵은 곧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릴 영생의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 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빌라도 앞에 침묵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소서.

¹³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¹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¹⁵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¹⁶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¹⁷ (없음) ¹⁸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¹⁹ 이 바라바는 성 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²⁰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

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²¹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²²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²³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²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²⁵ 그들이 요 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 주고 예수는 넘겨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공부
영어본문말씀

3월 1일 수요일

Luke 16:19~31

- 19 "There was a rich man who was dressed in purple and fine linen and lived in luxury every day.
- 20 At his gate was laid a beggar named Lazarus, covered with sores
- 21 and longing to eat what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Even the dogs came and licked his sores.
- 22 "The time came when the beggar died and the angels carried him to Abraham's side.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 23 In hell, where he was in torment, he looked up and saw Abraham far away, with Lazarus by his side.
- 24 So he called to him, 'Father Abraham, have pity on me and send Lazarus to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my tongue, because I am in agony in this fire.'
- 25 "But Abraham replied, 'Son, remember that in your lifetime you received your good things, while Lazarus received bad things, but now he is comforted here and you are in agony.'
- 26 And besides all this, between us and you a great chasm has been fixed, so that those who want to go from here to you cannot, nor can anyone cross over from there to us.'
- 27 "He answered, 'Then I beg you, father, send Lazarus to my father's house,
- 28 for I have five brothers. Let him warn them, so that they will not also come to this place of torment.'
- 29 "Abraham replied,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let them listen to them.'
- 30 " 'No, father Abraham,' he said, 'but if someone from the dead goes to them, they will repent.'
- 31 "He said to him, 'If they do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they will not be convinced even if someone rises from the dead.'

3월 2일 목요일

Luke 17:1~10

- 1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hings that cause people to sin are bound to come, but woe to that person through whom they

come.

- 2 It would be better for him to be thrown into the sea with a millstone tied around his neck than for him to cause one of these little ones to sin.
- 3 So watch yourselves. "If your brother sins, rebuke him, and if he repents, forgive him.
- 4 If he sins against you seven times in a day, and seven times comes back to you and says, 'I repent,' forgive him."
- 5 The apostles said to the Lord, "Increase our faith!"
- 6 He replied,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you can say to this mulberry tree, 'Be uprooted and planted in the sea,' and it will obey you.
- 7 "Suppose one of you had a servant plowing or looking after the sheep. Would he say to the servant when he comes in from the field, 'Come along now and sit down to eat'?
- 8 Would he not rather say, 'Prepare my supper, get yourself ready and wait on me while I eat and drink; after that you may eat and drink'?
- 9 Would he thank the servant because he did what he was told to do?
- 10 So you also, when you have done everything you were told to do, should say, 'We are unworthy servants; we have only done our duty.'"

3월 3일 금요일

Luke 17:11~19

- 11 Now on his way to Jerusalem, Jesus traveled along the border between Samaria and Galilee.
- 12 As he was going into a village, ten men who had leprosy met him. They stood at a distance
- 13 and called out in a loud voice,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 14 When he saw them, he said, "Go,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And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 15 One of them, when he saw he was healed, came back, praising God in a loud voice.
- 16 He threw himself at Jesus' feet and thanked him--and he was a Samaritan.
- 17 Jesus asked, "Were not all ten cleansed?"

Where are the other nine?

18 Was no one found to return and give praise to God except this foreigner?"

19 Then he said to him, "Rise and go;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3월 4일 토요일

Luke 17:20~27

20 Once, having been asked by the Pharisees when the kingdom of God would come, Jesus replied,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me with your careful observation,

21 nor will people say, 'Here it is,' or 'There it is,'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22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The time is coming when you will long to see one of the days of the Son of Man, but you will not see it.

23 Men will tell you, 'There he is!' or 'Here he is!' Do not go running off after them.

24 For the Son of Man in his day will be like the lightning, which flashes and lights up the sky from one end to the other.

25 But first he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is generation.

26 "Just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also will it be in the days of the Son of Man.

27 People were eating, drinking, marrying and being given in marriage up to the day Noah entered the ark. Then the flood came and destroyed them all.

3월 5일 주일

Luke 17:28~37

28 "It was the same in the days of Lot. People were eating and drinking, buying and selling, planting and building.

29 But the day Lot left Sodom, fire and sulfur rained down from heaven and destroyed them all.

30 "It will be just like this on the day the Son of Man is revealed.

31 On that day no one who is on the roof of his house, with his goods inside, should go down to get them. Likewise, no one in the field should go back for anything.

32 Remember Lot's wife!

33 Whoever tries to keep his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his life will preserve it.

34 I tell you, on that night two people will be in one bed;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35 Two women will be grinding grain together;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36

37 "Where, Lord?" they asked. He replied, "Where there is a dead body, there the vultures will gather."

3월 6일 월요일

Luke 18:1~8

1 Then Jesus told his disciples a parable to show them that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2 He said: "In a certain town there was a judge who neither feared God nor cared about men.

3 And there was a widow in that town who kept coming to him with the plea, 'Grant me justice against my adversary.'

4 "For some time he refused. But finally he said to himself, 'Even though I don't fear God or care about men,

5 yet because this widow keeps bothering me, I will see that she gets justice, so that she won't eventually wear me out with her coming.' "

6 And the Lord said, "Listen to what the unjust judge says.

7 And will not God bring about justice for his chosen ones, who cry out to him day and night? Will he keep putting them off?

8 I tell you, he will see that they get justice, and quickly.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3월 7일 화요일

Luke 18:9~14

9 To some who were confident of their own righteousness and looked down on everybody else, Jesus told this parable:

10 "Two men went up to the temple to pray,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a tax collector.

11 The Pharisee stood up and prayed about himself: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men--robbers, evildoers, adulterers--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12 I fast twice a week and give a tenth of all I

get.'

- 13 "But the tax collector stood at a distance. He would not even look up to heaven, but beat his breast and said,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 14 "I tell you that this man, rather than the other, went home justified before God.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3월 8일 수요일

Luke 18:15~30

- 15 People were also bringing babies to Jesus to have him touch them. When the disciples saw this, they rebuked them.
- 16 But Jesus called the children to him and said,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ese."
- 17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 18 A certain ruler asked him, "Good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 19 "Why do you call me good?" Jesus answered. "No one is good--except God alone."
- 20 You know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murder, do not steal, do not give false testimony,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 21 "All these I have kept since I was a boy," he said.
- 22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to him, "You still lack one thing. Sell everything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 23 When he heard this, he became very sad, because he was a man of great wealth.
- 24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How hard it is for the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 25 Indeed,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 26 Those who heard this asked, "Who then can be saved?"
- 27 Jesus replied, "What is impossible with men is possible with God."

28 Peter said to him, "We have left all we had to follow you!"

29 "I tell you the truth," Jesus said to them, "no one who has left home or wife or brothers or parents or children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God

30 will fail to receive many times as much in this age 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3월 9일 목요일

Luke 18:31~43

31 Jesus took the Twelve aside and told them,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everything that is written by the prophets about the Son of Man will be fulfilled."

32 He will be handed over to the Gentiles. They will mock him, insult him, spit on him, flog him and kill him.

33 On the third day he will rise again."

34 The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any of this. Its meaning was hidden from them, and they did not know what he was talking about.

35 As Jesus approached Jericho, a blind man was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36 When he heard the crowd going by, he asked what was happening.

37 They told him, "Jesus of Nazareth is passing by."

38 He called 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39 Those who led the way rebuked him and told him to be quiet, but he shouted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40 Jesus stopped and ordered the man to be brought to him. When he came near, Jesus asked him,

41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Lord, I want to see," he replied.

42 Jesus said to him, "Receive your sight; your faith has healed you."

43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Jesus, praising God. When all the people saw it, they also praised God.

3월 10일 금요일

Luke 19:1~10

1 Jesus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 2 A man was there by the name of Zacchaeus;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was wealthy.
- 3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but being a short man he could not, because of the crowd.
- 4 So he ran ahead and climbed a sycamore-fig tree to see him, since Jesus was coming that way.
- 5 When Jesus reached the spot,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 6 So he came down at once and welcomed him gladly.
- 7 All the people saw this and began to mutter, "He has gone to be the guest of a 'sinner.'"
- 8 But Zacchaeus stood up and said to the Lord, "Look, Lord! Here and now I give half of my possessions to the poor, and if I have cheated anybody out of anything, I will pay back four times the amount."
- 9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man, too, is a son of Abraham.
- 10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3월 11일 토요일

Luke 19:11~27

- 11 While they were listening to this, he went on to tell them a parable, because he was near Jerusalem and the people thought that the kingdom of God was going to appear at once.
- 12 He said: "A man of noble birth went to a distant country to have himself appointed king and then to return.
- 13 So he called ten of his servants and gave them ten minas. 'Put this money to work,' he said, 'until I come back.'
- 14 "But his subjects hated him and sent a delegation after him to say, 'We don't want this man to be our king.'
- 15 "He was made king, however, and returned home. Then he sent for the servants to whom he had given the money, in order to find out what they had gained with it.

- 16 "The first one came and said, 'Sir, your mina has earned ten more.'
- 17 " 'Well done, my good servant!' his master replied. 'Because you have been trustworthy in a very small matter, take charge of ten cities.'
- 18 "The second came and said, 'Sir, your mina has earned five more.'
- 19 "His master answered, 'You take charge of five cities.'
- 20 "Then another servant came and said, 'Sir, here is your mina; I have kept it laid away in a piece of cloth.
- 21 I was afraid of you, because you are a hard man. You take out what you did not put in and reap what you did not sow.'
- 22 "His master replied, 'I will judge you by your own words, you wicked servant! You knew, did you, that I am a hard man, taking out what I did not put in, and reaping what I did not sow?
- 23 Why then didn't you put my money on deposit, so that when I came back, I could have collected it with interest?'
- 24 "Then he said to those standing by, 'Take his mina away from him and give it to the one who has ten minas.'
- 25 " 'Sir,' they said, 'he already has ten!'
- 26 "He replied, 'I tell you that to everyone who has, more will be given, but as for the one who has nothing,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 27 But those enemies of mine who did not want me to be king over them--bring them here and kill them in front of me."

3월 12일 주일

Luke 19:28~36

- 28 After Jesus had said this, he went on ahead, going up to Jerusalem.
- 29 As he approached Bethphage and Bethany at the hill called the Mount of Olives, he sent two of his disciples, saying to them,
- 30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as you enter it, you will find a colt tied there, which no one has ever ridden. Untie it and bring it here.
- 31 If anyone asks you, 'Why are you untying it?' tell him, 'The Lord needs it.' "

32 Those who were sent ahead went and found it just as he had told them.

33 As they were untying the colt, its owners asked them, "Why are you untying the colt?"

34 They replied, "The Lord needs it."

35 They brought it to Jesus, threw their cloaks on the colt and put Jesus on it.

36 As he went along, people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3월 13일 월요일

Luke 19:37~48

37 When he came near the place where the road goes down the Mount of Olives, the whole crowd of disciples began joyfully to praise God in loud voices for all the miracles they had seen:

38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39 Some of the Pharisees in the crowd said to Jesus, "Teacher, rebuke your disciples!"

40 "I tell you," he replied, "if they keep quiet, the stones will cry out."

41 As he approached Jerusalem and saw the city, he wept over it

42 and said, "If you, even you, had only known on this day what would bring you peace-- but now it is hidden from your eyes.

43 The days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 build an embankment against you and encircle you and hem you in on every side.

44 They will dash you to the ground, you and the children within your walls. They will not leave one stone on another,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45 Then he entered the temple area and began driving out those who were selling.

46 "It is written," he said to them, "My house will be a house of prayer";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47 Every day he was teaching at the temple. But the chief priest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leaders among the people were trying to kill him.

48 Yet they could not find any way to do it,

because all the people hung on his words.

3월 14일 화요일

Luke 20:1~8

1 One day as he was teaching the people in the temple courts and preaching the gospel,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together with the elders, came up to him.

2 "Tell us by what authority you are doing these things," they said. "Who gave you this authority?"

3 He replied, "I will also ask you a question. Tell me,

4 John's baptism--was it from heaven, or from men?"

5 They discussed it among themselves and said,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ask, 'Why didn't you believe him?'"

6 But if we say, 'From men,' all the people will stone us, because they are persuaded that John was a prophet."

7 So they answered, "We don't know where it was from."

8 Jesus said,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3월 15일 수요일

Luke 20:9~18

9 He went on to tell the people this parable: "A man planted a vineyard, rented it to some farmers and went away for a long time.

10 At harvest time he sent a servant to the tenants so they would give him some of the fruit of the vineyard. But the tenants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11 He sent another servant, but that one also they beat and treated shamefully and sent away empty-handed.

12 He sent still a third, and they wounded him and threw him out.

13 "Then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What shall I do? I will send my son, whom I love; perhaps they will respect him.'

14 "But when the tenants saw him, they talked the matter over. 'This is the heir,' they said. 'Let's kill him, and the inheritance will be ours.'

15 So they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and killed him. "What then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to them?

16 He will come and kill those tenants and give the vineyard to others."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said, "May this never be!"

17 Jesus looked directly at them and asked, "Then what is the meaning of that which is written: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

18 Everyone who falls on that stone will be broken to pieces, but he on whom it falls will be crushed."

3월 16일 목요일

Luke 20:19~26

19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chief priests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immediately, because they knew he had spoken this parable against them. But they were afraid of the people.

20 Keeping a close watch on him, they sent spies, who pretended to be honest. They hoped to catch Jesus in something he said so that they might hand him over to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governor.

21 So the spies questioned him: "Teacher, we know that you speak and teach what is right, and that you do not show partiality but teach the way of God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22 Is it right for us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23 He saw through their duplicity and said to them,

24 "Show me a denarius. Whose portrait and inscription are on it?"

25 "Caesar's," they replied. He said to them, "Then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26 They were unable to trap him in what he had said there in public. And astonished by his answer, they became silent.

3월 17일 금요일

Luke 20:27~40

27 Some of the Sadducees, who say there is no resurrection, came to Jesus with a question.

28 "Teacher," they said, "Moses wrote for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and leaves a

wife but no children, the man must marry the widow and have children for his brother.

29 Now there were seven brothers. The first one married a woman and died childless.

30 The second

31 and then the third married her, and in the same way the seven died, leaving no children.

32 Finally, the woman died too.

33 Now then,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the seven were married to her?"

34 Jesus replied, "The people of this age marry and are given in marriage.

35 But those who are considered worthy of taking part in that age and in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36 and they can no longer die; for they are like the angels. They are God's children, since they are children of the resurrection.

37 But in the account of the bush, even Moses showed that the dead rise, for he calls the Lord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38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for to him all are alive."

39 Some of the teachers of the law responded, "Well said, teacher!"

40 And no one dared to ask him any more questions.

3월 18일 토요일

Luke 20:41~47

41 Then Jesus said to them, "How is it that they say the Christ is the Son of David?"

42 David himself declares in the Book of Psalms: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43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44 David calls him 'Lord.' How then can he be his son?"

45 While all the people were listening, Jesus said to his disciples,

46 "Beware of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like to walk around in flowing robes and love to be greeted in the marketplaces and have the most importan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places of honor at banquets.

- 47 They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show make lengthy prayers. Such men will be punished most severely."

3월 19일 주일

Luke 21:1~9

- 1 As he looked up, Jesus saw the rich putting their gifts into the temple treasury.
2 He also saw a poor widow put in two very small copper coins.
3 "I tell you the truth," he said, "this poor widow has put in more than all the others.
4 All these people gave their gifts out of their wealth;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all she had to live on."
5 Some of his disciples were remarking about how the temple was adorned with beautiful stones and with gifts dedicated to God. But Jesus said,
6 "As for what you see here, the time will come when not one stone will be left on another; every one of them will be thrown down."
7 "Teacher," they asked, "when will these things happen? And what will be the sign that they are about to take place?"
8 He replied: "Watch out that you are not deceived. For many will come in my name, claiming, 'I am he,' and, 'The time is near.' Do not follow them.
9 When you hear of wars and revolutions, do not be frightened. These things must happen first, but the end will not come right away."

3월 20일 월요일

Luke 21:10~19

- 10 Then he said to them: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11 There will be great earthquakes, famines and pestilences in various places, and fearful events and great signs from heaven.
12 "But before all this, they will lay hands on you and persecute you. They will deliver you to synagogues and prisons, and you will be brought before kings and governors, and all on account of my name.

- 13 This will result in your being witnesses to them.
14 But make up your mind not to worry beforehand how you will defend yourselves.

- 15 For I will give you words and wisdom that none of your adversaries will be able to resist or contradict.
16 You will be betrayed even by parents, brothers, relatives and friends, and they will put some of you to death.

- 17 All men will hate you because of me.
18 But not a hair of your head will perish.
19 By standing firm you will gain life.

3월 21일 화요일

Luke 21:20~28

- 20 "When you see Jerusalem being surrounded by armies, you will know that its desolation is near.
21 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let those in the city get out, and let those in the country not enter the city.
22 For this is the time of punishment in fulfillment of all that has been written.
23 How dreadful it will be in those days for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There will be great distress in the land and wrath against this people.
24 They will fall by the sword and will be taken as prisoners to all the nations. Jerusalem will be trampled on by the Gentiles until the times of the Gentiles are fulfilled.
25 "There will be signs in the sun, moon and stars. On the earth, nations will be in anguish and perplexity at the roaring and tossing of the sea.
26 Men will faint from terror, apprehensive of what is coming on the world, for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27 At that time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28 When these things begin to take place, stand up and lift up your heads, because your redemption is drawing near."

3월 22일 수요일

Luke 21:29~38

- 29 He told them this parable: "Look at the fig

tree and all the trees.

- 30 When they sprout leaves, you can see for yourselves and know that summer is near.
31 Even so, when you see these things happening, you know that the kingdom of God is near.
32 "I tell you the truth, this generation will certainly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33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34 "Be careful, or your hearts will be weighed down with dissipation, drunkenness and the anxieties of life, and that day will close on you unexpectedly like a trap.
35 For it will come upon all those who live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36 Be always on the watch, and pray that you may be able to escape all that is about to happen, an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37 Each day Jesus was teaching at the temple, and each evening he went out to spend the night on the hill called the Mount of Olives,
38 and all the people came early in the morning to hear him at the temple.

3월 23일 목요일

Luke 22:1~13

- 1 Now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called the Passover, was approaching,
2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ere looking for some way to get rid of Jesus, for they were afraid of the people.
3 Then Satan entered Judas, called Iscariot, one of the Twelve.
4 And Judas went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officers of the temple guard and discussed with them how he might betray Jesus.
5 They were delighted and agreed to give him money.
6 He consented, and watched for an opportunity to hand Jesus over to them when no crowd was present.
7 Then came the day of Unleavened Bread on which the Passover lamb had to be sacrificed.
8 Jesus sent Peter and John, saying, "Go and make preparations for us to eat the

Passover."

- 9 "Where do you want us to prepare for it?" they asked.
10 He replied, "As you enter the city, a man carrying a jar of water will meet you. Follow him to the house that he enters,
11 and say to the owner of the house, 'The Teacher asks: Where is the guest room, where I may eat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12 He will show you a large upper room, all furnished. Make preparations there."
13 They left and found things just as Jesus had told them. So they prepared the Passover.

3월 24일 금요일

Luke 22:14~23

- 14 When the hour came, Jesus and his apostles reclined at the table.
15 And he said to them, "I have eager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16 For I tell you, I will not eat it again until it finds fulfillment in the kingdom of God."
17 After taking the cup, he gave thanks and said, "Take this and divide it among you.
18 For I tell you I will not drink again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
19 And he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0 In the same way, after the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poured out for you.
21 But the hand of him who is going to betray me is with mine on the table.
22 The Son of Man will go as it has been decreed, but woe to that man who betrays him."
23 They began to question among themselves which of them it might be who would do this.

3월 25일 토요일

Luke 22:24~34

- 24 Also a dispute arose among them as to which of them was considered to be

greatest.

25 Jesus said to them, "The king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ose who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call themselves Benefactors.

26 But you are not to be like that. Instead, the greatest among you should be like the youngest, and the one who rules like the one who serves.

27 For who is greater, the one who is at the table or the one who serves? Is it not the one who is at the table? But I am among you as one who serves.

28 You are those who have stood by me in my trials.

29 And I confer on you a kingdom, just as my Father conferred one on me,

30 so that you may eat and drink at my table in my kingdom and sit on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31 "Simon, Simon, Satan has asked to sift you as wheat.

32 But I have prayed for you, Simon,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And when you have turned back, strengthen your brothers."

33 But he replied, "Lord, I am ready to go with you to prison and to death."

34 Jesus answered, "I tell you, Peter,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eny three times that you know me."

3월 26일 주일

Luke 22:35~46

35 Then Jesus asked them, "When I sent you without purse, bag or sandals, did you lack anything?" "Nothing," they answered.

36 He said to them, "But now if you have a purse, take it, and also a bag; and if you don't have a sword, sell your cloak and buy one.

37 It is written: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and I tell you that this must be fulfilled in me. Yes, what is written about me is reaching its fulfillment."

38 The disciples said, "See, Lord, here are two swords." "That is enough," he replied.

39 Jesus went out as usual to the Mount of Olives,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40 On reaching the place, he said to them,

"Pray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41 He withdrew about a stone's throw beyond them, knelt down and prayed,

42 "Father, if you are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43 An angel from heaven appeared to him and strengthened him.

44 And being in anguish, he prayed more earnestly, and his sweat was like drops of blood falling to the ground.

45 When he rose from prayer and went back to the disciples, he found them asleep, exhausted from sorrow.

46 "Why are you sleeping?" he asked them. "Get up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3월 27일 월요일

Luke 22:47~53

47 While he was still speaking a crowd came up, and the man who was called Judas, one of the Twelve, was leading them. He approached Jesus to kiss him,

48 but Jesus asked him, "Judas, are you betraying the Son of Man with a kiss?"

49 When Jesus' followers saw what was going to happen, they said, "Lord, should we strike with our swords?"

50 And one of them struck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cutting off his right ear.

51 But Jesus answered, "No more of this!" And he touched the man's ear and healed him.

52 Then Jesus said to the chief priests, the officers of the temple guard, and the elders, who had come for him, "Am I leading a rebellion, that you have come with swords and clubs?

53 Every day I was with you in the temple courts, and you did not lay a hand on me. But this is your hour--when darkness reigns."

3월 28일 화요일

Luke 22:54~62

54 Then seizing him, they led him away and took him into the house of the high priest. Peter followed at a distance.

55 But when they had kindled a fire in the middle of the courtyard and had sat down together, Peter sat down with them.

56 A servant girl saw him seated there in the firelight. She looked closely at him and said, "This man was with him."

57 But he denied it. "Woman, I don't know him," he said.

58 A little later someone else saw him and said, "You also are one of them." "Man, I am not!" Peter replied.

59 About an hour later another asserted, "Certainly this fellow was with him, for he is a Galilean."

60 Peter replied, "Man,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Just as he was speaking, the rooster crowed.

61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the Lord had spoken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62 And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3월 29일 수요일

Luke 22:63~71

63 The men who were guarding Jesus began mocking and beating him.

64 They blindfolded him and demanded, "Prophesy! Who hit you?"

65 And they said many other insulting things to him.

66 At daybreak the council of the elders of the people, both the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met together, and Jesus was led before them.

67 "If you are the Christ," they said, "tell us." Jesus answered, "If I tell you, you will not believe me,

68 and if I asked you, you would not answer.

69 But from now on, the Son of Man will be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God."

70 They all asked, "Are you then the Son of God?" He replied, "You are right in saying I am."

71 Then they said, "Why do we need any more testimony? We have heard it from his own lips."

3월 30일 목요일

Luke 23:1~12

1 Then the whole assembly rose and led him off to Pilate.

2 And they began to accuse him, saying, "We have found this man subverting our nation. He opposes payment of taxes to Caesar and claims to be Christ, a king."

3 So Pilate asked Jesus,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Yes, it is as you say," Jesus replied.

4 Then Pilate announce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crowd, "I find no basis for a charge against this man."

5 But they insisted, "He stirs up the people all over Judea by his teaching. He started in Galilee and has come all the way here."

6 On hearing this, Pilate asked if the man was a Galilean.

7 When he learned that Jesus was under Herod's jurisdiction, he sent him to Herod, who was also in Jerusalem at that time.

8 When Herod saw Jesus, he was greatly pleased, because for a long time he had been wanting to see him. From what he had heard about him, he hoped to see him perform some miracle.

9 He plied him with many questions, but Jesus gave him no answer.

10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ere standing there, vehemently accusing him.

11 Then Herod and his soldiers ridiculed and mocked him. Dressing him in an elegant robe, they sent him back to Pilate.

12 That day Herod and Pilate became friends--before this they had been enemies.

3월 31일 금요일

Luke 23:13~25

13 Pilate called together the chief priests, the rulers and the people,

14 and said to them, "You brought me this man as one who was inciting the people to rebellion. I have examined him in your presence and have found no basis for your charges against him."

15 Neither has Herod, for he sent him back to us; as you can see, he has done nothing to deserve death.

16 Therefore, I will punish him and then release

him."

17

18 With one voice they cried out, "Away with this man! Release Barabbas to us!"

19 (Barabbas had been thrown into prison for an insurrection in the city, and for murder.)

20 Wanting to release Jesus, Pilate appealed to them again.

21 But they kept shouting, "Crucify him! Crucify him!"

22 For the third time he spoke to them: "Why? What crime has this man committed? I have found in him no grounds for the death penalty. Therefore I will have him punished and then release him."

23 But with loud shouts they insistently demanded that he be crucified, and their shouts prevailed.

24 So Pilate decided to grant their demand.

25 He released the man who had been thrown into prison for insurrection and murder, the one they asked for, and surrendered Jesus to their will.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 44:4

충현의 만나 2017년 3월

Copyright© 2017 Choonghyun Church

발행인·편집인 | 권명옥, 집필진 | 이기영 정양선 김운정 김원기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품]